

〈우리동네 예체능〉으로 간
이호근 아나운서

“예능이지만 치열하게 해요.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개인
연습을 열심히 하죠. 강남
같은 친구가 팔에 피멍이 들도록
연습해서 실전에서 멋진 리시브를
성공시키면 덩달아 제 목소리도
커지죠. 백지 상태로 출발해서
아마추어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 놀라워요. 리얼 생활체육
예능이죠.”



Sports is Everywhere

2016 코파 아메리카 전 경기를
KBS N Sports와 함께





대한민국 **KBO**리그의 시작과 끝!
KBSN SPORTS

www.kbsn.co.kr

CONTENTS

JUNE. 2016 VOL.03



표지 이야기

코파 아메리카 해설위원 4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메리카 대륙의 진정한 승자를 가리는 이번 대회를 두고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의 인터뷰는 8p. <아메리카 축구에 빠진 날>에서 볼 수 있다.

04 N special

Sports is Everywhere

미국으로 간 코파 아메리카
 충청도로 간 KBS N
 <우리동네 예체능>으로 간 이호근 아나운서

14 N program

전국투어 나선 <우리동네 예체능> 배구단

15 On air

2016 월드컵 국제남자배구대회

06



12



22



16 Interview

<최강남녀> 4MC의 덕밍아웃 토크

18 Review

우리 모두는 무언가의 덕후였다

19 N partner

K2E 남명희 대표

20 N news

2016 코파 아메리카 기자 간담회

22 Notice

KBS N 아나운서 공식 인스타그램

KBS N Magazine

발행인 이준용
 발행일 2016.06.07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297
 기획 홍보팀 이용주, 최고은, 이지희
 제작·디자인 디앤씨(02-792-5444)



www.KBSN.co.kr

<KBS N 매거진>은 매달 첫째 월요일에 발행됩니다. 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거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BS N 홍보팀 pr@kbsn.co.kr

N special

Sports is Everywhere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보여 환호하던
축구팬도 조기축구회 나가 공을 찬다.
스포츠는 어디에나 있다. 미국에서
열리는 코파 아메리카부터 전국투어 나선
<우리동네 예체능> 배구단까지. 6월에도
스포츠 사랑은 계속된다.



**COPA AMERICA
CENTENARIO**
— USA 2016 —

GO! 미국

미국으로 간 코파 아메리카
남미월드컵으로 불리는 '코파 아메리카'가
창설 100주년을 맞아 미국에서 열린다.
6월 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전 경기를
KBS N Sports가 중계한다.



GO! 충청도

충청도로 간 KBS N

충북도민체육대회와 충남도민체육대회가
6월 9일부터 열린다. KBS N은 지역 체육의
기반이 되는 도민체육대회를 응원하고 지원한다.



GO! 우리동네

우리동네
예체능

전국투어 나선 <우리동네 예체능> 배구단
우리동네 예체능 팀이 '전국투어 1탄'으로
전라도 광주를 찾았다. 광주 블루윙즈와의 진땀
승부를 이호근 캐스터와 함께했다.



COPA AMERICA CENTENARIO USA 2016

미국으로 간 코파 아메리카

FC 바르셀로나의 메시와 수아레스가 자국의 유니폼을 입고 맞붙는다면? 코파 아메리카라면 가능하다.
창설 100주년을 맞아 미국에서 열리는 '코파 아메리카 USA'로 6월이 뜨겁다.
뜨거운 열기를 KBS N Sports 와 함께 느껴보자.

아메리카 대륙 16개 나라가 벌이는 세계 최고의 축구 대회

FC 바르셀로나의 우승으로 2015-2016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가 끝이 났다. <라리가쇼>를 진행하던 이지수 아나운서의 모습도 당분간 볼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팬들은 6월에도 심심할 겨를이 없다. 리오넬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다시 경기에 나선다.

이번에는 미국이다. 남미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코파 아메리카'가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린다. 코파 아메리카가 남미 국가가 아닌 타 대륙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애틀, 시카고, 휴스턴 등 미 전역의 10개 도시에서 6월 4일부터 27일(한국 시간)까지 열린다. 이번만큼은 남미월드컵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2개 대륙에서 16개국이 참여한다. 4팀씩 4개 조로 나뉘어 조별 리그를 벌인 후 각 조의 1, 2위 팀이 8강에 올라 토너먼트로 승부를 가린다. KBS N Sports는 김대길, 이영표, 한준희, 박찬하 위원의 해설로 전 경기를 중계한다.

그룹별 관전 포인트

GROUP A

- USA
- COLOMBIA
- COSTA RICA
- PARAGUAY

미국 vs 콜롬비아 vs 코스타리카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의 조'

개최국 미국은 끈끈한 팀이다. 지난해 A매치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을 연파했다. 북중미 골드컵 5회 우승에 빛나지만, 2015년 대회에서는 4위에 그쳤다. 미 대표팀을 이끄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다. 콜롬비아는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8강에 오른 강팀이다. 2015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주춤했다. 8강전에서 아르헨티나에 패하며 일찍 짐을 썼다. 하메스 로드리게스(레알 마드리드)와 후안 파드라노(유벤투스)가 팀을 이끈다. 코스타리카도 만만치 않다. 골키퍼 나바스(레알 마드리드)가 빠진 건 아쉽지만, 아스널의 공격수 조엘 캄벨이 된다.

GROUP B

- BRAZIL
- ECUADOR
- HAITI
- PERU

거침없는 브라질 네이마르 대신 윌리안

브라질은 말이 필요 없는 팀이다. 다만 네이마르(바르셀로나)가 리우 올림픽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번 대회에 불참했다. 그 자리를 윌리안(첼시)이 맡는다. 또 포스트 네이마르로 불리는 1996년생 신동 가브리엘 바르보사(산투스)가 이름을 올렸다. 브라질 최고 유망주가 이번 대회에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사뭇 기대된다. 헐크(제니트)와 조나스(벤피카), 쿠티뉴(리버풀) 등으로 꾸려진 공격진은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이지만, 조 추첨은 운이 따랐다. 에라도르의 핵심으로는 안토니오 발렌시아(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눈에 띈다.

GROUP C

- MEXICO
- URUGUAY
- JAMAICA
- VENEZUELA

멕시코 vs 우루과이 북미와 남미의 강호가 벌이는 결전

멕시코는 북미의 강호다. 골키퍼 기예르모 오초아(말라가), 수비수인 디에고 레예스(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정상급 선수들이 나선다. 지난해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하비에르 에르난데스도 빼놓을 수 없다.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 26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탔다. 우루과이는 매년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팀이다. 수아레스(바르셀로나)와 카바니(파리 생제르맹)가 공격의 선봉에 선다. 다만, 스페인 국왕컵 결승전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한 수아레스의 몸 상태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GROUP D

- ARGENTINA
- CHILE
- PANAMA
- BOLIVIA

아르헨티나 vs 칠레 조별 라운드 최고의 빅 매치

운명의 장난 같다. 2015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만나 승부차기의 혈투를 벌인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같은 조에 들었다. 0대 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칠레가 4대 1로 이겼다. 6월 7일 오전 산타클라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맞대결은 이번 대회 조별 라운드의 빅 매치로 꼽힌다. FIFA 랭킹에서 밀리는 파나마(60위)와 볼리비아(72위)를 제치고, 두 팀이 무난히 8강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5 북중미 골드컵 준결승전에서 멕시코에 맞서 선전한 파나마도 눈여겨볼 팀이다.



숫자로 보는 2016 코파 아메리카



가장 오래된 국제 축구경기인 코파 아메리카의 창설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벤트성 대회다. 1916년 초대 대회에서 우루과이가 우승을 차지했다. 작년에 열린 44회 공식 대회에서는 개최국 칠레가 아르헨티나를 꺾고 첫 우승의 감격을 안았다.



남미축구연맹(CONMEBOL)의 10개 나라, 북중미 카리브축구연맹(CONCACAF)의 6개 나라가 참여한다. 개최국 미국, 북중미 챔피언 멕시코를 비롯하여 코스타리카(2014 코파센트로아메리카나 우승), 자메이카(2014 캐리비안컵 우승), 아이티, 파나마(플레이오프 통과 2팀)가 출전한다.



A조: 미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B조: 브라질, 에라도르, 아이티, 페루
C조: 멕시코, 우루과이, 자메이카, 베네수엘라
D조: 아르헨티나, 칠레, 파나마, 볼리비아

아메리카 축구에 빠진 날

6월은 '코파 아메리카의 달'이다. KBS N Sports는 대회가 시작되는 4일부터 매일 16시간 중계방송을 이어간다. 4인의 해설위원이 전하는 코파 아메리카의 매력 속으로.



미국의
선전을
예상한다
김대길 해설위원



본능과
열정에
충실한 축구
이영표 해설위원



유로보다
코파
아메리카
한준희 해설위원



아르헨티나,
이번만큼은
박찬하 해설위원

세계 축구의 흐름은 크게 남미의 기술과 창의성, 유럽의 힘과 조직력으로 나눌 수 있다. 남미는 세계 축구의 인력시장으로 통한다. 많은 선수들이 유럽의 빅 리그에 진출해서 유럽의 힘과 조직력에 적응하면서 더 강해졌다.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의 MSN 트리오가 뛰는 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이다.

개인적으로 '죽음의 A조'에 속한 미국을 눈여겨 보고 있다. 코파 아메리카 역대 대회에서 개최국의 성적이 좋은 편이다. 과연 미국이 8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 조 2위로 8강 오르면 B조 1위로 예상되는 브라질을 만날 가능성이 큰데, 이 경기는 어떻게 될까? 브라질을 침몰시키고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브라질은 측면 공격수 윌리안(첼시)의 활약이 중요해 보인다. 네이마르의 공백을 그가 얼마나 메워주느냐가 관건이다.



① 아르헨티나 ② 브라질 ③ 칠레 ④ 미국

아르헨티나는 허점이 없는 강력한 우승 후보다. 브라질도 4강은 무난해 보인다. 칠레는 지난해 우승국으로 산체스와 비달, 바르가스 가 견재하다. 홈경기의 이점을 살린 미국도 선전이 예상된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전통의 강호가 있지만 콜롬비아, 칠레, 미국, 멕시코 등 7팀의 실력이 거의 대등하다고 본다. 선수 구성만 놓고 보면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앞서지만 축구는 전술, 정신력, 감독의 역량, 팀 분위기 등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팀 중에서 어느 팀이 우승해도 이상할 게 없는 대회란 생각이 든다.

유로 대회가 특급호텔 뷔페라면, 코파 아메리카는 누구나 좋아하는 전통식당의 감자탕, 평양냉면 같은 느낌이다. 유럽 축구가 잘 짜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인다면, 남미 축구는 함께 웃고 우는 본능과 열정에 충실하다. 예측 불가능성, 의외성이 매력이다. 우리가 잘 몰랐던, 존재감이 없던 선수가 갑자기 뜰 수 있다. 그런 선수가 서너 명은 나올 거다. 기대감이 크다.



① 아르헨티나 ② 칠레 ③ 브라질 ④ 미국

아르헨티나는 이견이 없는 팀이다. 개인적으로 전년도 우승팀 칠레에 거는 기대감이 있다. 솔직히 예측이 어렵다. 우루과이, 콜롬비아, 멕시코를 포함해 어느 팀이 우승해도 이상할 게 없다.

통상 남미 10팀에 북중미 2팀을 초청해 12개국으로 치르는 공식 대회와는 달리, 이번 대회는 자격을 갖춘 북중미 6팀을 선별해 16개국으로 대회를 치른다. 이들 중 절반에 이르는 8개 나라가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모두 16강에 올랐다. 그만큼 팀 전력이 탄탄하고,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코파 아메리카의 가장 큰 매력은 독특한 전술과 스타일을 지닌 팀들을 여럿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 월드컵은 물론, 근래 열린 국제대회에서 색깔 있는 다양한 전술을 들고 나온 팀들의 상당수가 남미 또는 북중미 팀들이다. 마르셀로 비엘사, 리카르도 라볼페 같은 '개성파' 감독들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는 칠레와 멕시코가 대표적이다. 전술 면에서 현대축구의 진수를 만끽하려면 '유로'보다는 확실히 '코파 아메리카'다.



① 칠레 ② 아르헨티나 ③ 우루과이 ④ 멕시코

칠레는 작년 대회 우승팀으로 주력 선수들의 안정성이 돋보인다. 멕시코는 미국 다음으로 홈팀의 이점을 누리는데다, 월드컵 지역 예선 등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이번 대회는 원래 멕시코에서 치르기로 했다가 재정상의 이유로 미국이 유치한 걸로 알고 있다. 1년 만에 다시 치르는 코파 아메리카지만 흥행성을 고려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남미 축구가 대단한 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늘 월드컵 우승 후보로 꼽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도 저력 있는 팀이다.

팬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슈퍼스타들의 활약에 쏠려 있다.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올해는 과연 우승 트로피를 안을 수 있을까, 하는 부상으로 토너먼트에나 돌아올 수아레스의 컨디션, 네이마르가 빠진 브라질의 공격력, 북중미의 다크호스 미국과 멕시코 등 흥미로운 볼거리가 많다. 선수 선발부터 과감한 결단을 내린 브라질 등 감독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궁금하다.



① 아르헨티나 ② 우루과이 ③ 칠레 ④ 콜롬비아

아르헨티나는 동기 부여가 확실하다. 1993년 이후 코파 아메리카 우승이 없고, 지난해 칠레에 패한 후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근래 브라질 다음으로 우승을 많이 했다.

도민체육대회 함께해요

충청도로 간 KBS N

충북도민체육대회와 충남도민체육대회가 6월 9일에 열린다. KBS N 브랜드사업팀이 개회식과 폐회식의 연출을 맡았다. 이제 충청도가 들썩거릴 일만 남았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한 번쯤 이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란 뜻이다. 이 말은 도민체육대회에 꼭 들어맞는다. 지역에서 도민체육대회의 인기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못지않다. 개회식도 성대하고, 배구 탁구 테니스 볼링 육상 수영 등 여러 종목의 경기가 박진감 있게 펼쳐진다.

생활체육 수준의 아마추어 대회로 보면 안 된다. 해당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 국가대표를 꿈꾸는 예비 꿈나무들이 출전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펼친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를 가리는 예선전 성격도 강하다. 학생부, 일반부로 나누어 경기를 치르고, 각 도의 체육회에서 정한 경기 종목으로 승부를 가른다. 충북도민체전의 경우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제기차기(민속놀이) 같은 종목을 포함하기도 한다. 어쨌든 대회의 목적은 뚜렷하다. 개인의 기록이나 팀 성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민 화합’이 우선이다.

도민체육대회의 백미는 개회식

벌써 68회째를 맞는 충남도민체육대회가 6월 9일부터 나흘간 예산군에서 열린다. 계룡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작년 대회가 메르스 여파로 순연되면서 큰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회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또 올해로 55회째를 맞는 충북도민체육대회가 6월 9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단양에서 열린다. 11개 시군이 돌아가며 대회를 열다 보니, 11년 만에 돌아온 행사가 반갑기만 하다.

도민체전은 <우리동네 예체능> 같은 재미가 있다. 지역을 대표해 내 가족과 이웃이 선수로 나서니 응원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

진다. 모든 게 지역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회의 공식 일정은 성화 채화로 시작된다. 충북도민체전의 경우 소백산 연화봉에서 채화한다. 170명의 주자가 8개 읍면을 돌아 단양종합운동장으로 향한다. 개폐회식 연출을 맡은 KBS N의 브랜드사업팀은 이날을 위해 6개월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도민체전의 백미는 뭐니 해도 개회식이다. 충남도민체전은 올해 주제를 ‘풍요 가득한 천백년의 터 예산’으로 잡았다. ‘예덕 상무사 보부상’이란 주제를 퓨전 국악 연주와 비보이의 화려한 공연으로 풀어낸다. 또 예산군의 ‘소녀 명창’으로 불린 송소희 양이 군립합창단과 함께 감동의 무대를 꾸민다.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 세대, 장르별로 군민들이 선호하는 가수를 섭외했다. 블락비, 마마무, 홍진영, 박상철 등 아이돌과 트로트 가수의 조합이 돋보인다.

볼거리 넘치는 지역 최대 체육 행사

도민체육대회의 경우 KBS N의 브랜드사업팀에서 맡아서 진행한다. KBS N은 방송을 통해 축적한 기획력과 안정된 실

행력으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이벤트나 축제를 대행해왔다. 2012년 R16 코리아 세계 비보이대회, 2013년 러시아 카잔 유니버시아드대회 대회기 인수식,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문화행사 등이 대표적이다.

도민체육대회 행사는 오래전부터 맡아왔다. 충남도민체육대회의 경우 2012년 64회(서산시), 2013년 65회(홍성군)를 연속으로 맡았다. 충북도민체육대회는 청주에서 열린 54회 대회에 이어 올해로 2년째다. 대회 홍보 못지않게 지역 홍보도 중요하다. 단양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육쪽마늘을 알리기 위해 선수단 입장에 맞춰 관람석을 향해 마늘을 대포로 쏘는 아이디어까지 냈다.

도민체전은 지역의 체육시설을 개보수하고 체육 인프라를 갖추는 계기가 된다. 모든 대회는 관내에서 치러진다. 수천 명에 이르는 시군 임원과 선수단들이 찾아와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 도민들 피부에 와 닿는 지역 최대의 체육 행사인 셈이다. KBS N은 지역 체육의 기반이 되는 도민체육대회를 응원하고 지원한다.

도민체육대회 이모저모

도민체육대회는 1960년대에 체육 진흥의 일환으로 경기 종목을 보급하고 체육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활성화되었다. 시군의 과열 경쟁, 엘리트 선수 육성 위주의 정책, 관중 없는 체육인들만의 잔치라는 말도 있었지만, 1990년대 지방자치 시대를 맞으면서 전 도민이 함께하는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 잔치로 거듭났다. 승부의 치열함은 지역 경기라고 다를 게 없다. 다들 최선을 다해 된다. 흥미진진한 경기뿐 아니라 다른 볼거리도 많다. 개회식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화 행사, 특산물, 먹거리 풍성한 장터 등 찾아볼 재미가 많다.

* 충청북도체육회 홈페이지 <충북도민체육대회 역사> 참조



나는
치열한

캐스터다

<우리동네 예체능>으로 간
이호근 아나운서

2014년 여름, 테니스 중계로 처음 합류하면서 불박이가 되었다. 지금은 <우리동네 예체능>의 배구 중계를 맡고 있다. 강호동 말, 이호근은 '치열한 캐스터'다.

“오만석의 리시브, 료혜이의 토스를 받은 학진의 강력한 스파이크! 우리동네 팀의 왼쪽 공격이 다시 살아 납니다.” 체육관은 만원 관중의 함성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이호근 캐스터의 눈빛과 말투에는 변함이 없다. 배구 중계를 하는 캐스터의 모습 그대로다.

불박이 고정 캐스터가 되다 “2014년 여름, 테니스 중계를 시작할 때 처음 합류했어요.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선배님 들이 참 많으세요. 그분들 소개로 들어왔다 불박이로 2년 가까이 하고 있네요.”

출연 횟수로만 보면 강호동 다음이다. 예능의 특성상 되도록이면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지 않는다. 배구만 해도 백어택 같은 말은 안 쓴다. 그냥 스파이크로 통일한다. 속공도 A, B, C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속공으로 간다. 처음 합류했을 때 그런 감을 잡느라 힘들었다. <우리동네 예체능>은 탁구, 볼링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10개가 넘는 생활체육 종목에 도전했다. 캐스터 자리는 순환 보직이었다. 각 종목에 맞는 스포츠 아나운서를 섭외해 두 달 정도 함께했다. 농구는 김기웅 아나운서가, 축구는 이광용 아나운서가 맡았다. “테니스 다음이 족구였어요. 평소에 자주 하는 운동이라 제가 하겠다고 했죠. 그 다음이 수영이었는데, 드라마에서 수영 중계 캐스터 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게 되었죠. 다른 종목은 괜찮았는데, 유도는 참 어려웠어요. 처음 접하는 종목인 데다, 현장 여건상 닫힌 공간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중계해야 했거든요.”

본분에 충실한 아나운서 예능에 와서 많이 배웠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 MC 강호동은 노련한 진행, 상황 대처 능력, 특유의 자신감으로 그를 매료시켰다. 팀에서 오른쪽 공격수를 맡은 배우 조동혁은 통통 부은 오른손에 테이핑을 두껍게 하고 경기에 임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구교익이 그를 대신해 공격수로 나섰다.

“언젠가 친분이 있는 홍경민 선배한테 쉬는 날 전화를 했더니 양상국, 서지석 형과 같이 족구 연습을 하고 있던군요. 예능이지만 치열하게 해요.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개인 연습을 열심히 하죠. 강남 같은 친구가 팔에 피멍이 들도록 연습해서 실전에서 멋진 리시브를 성공시키면 덩달아 제 목소리도 커지죠. 백지 상태로 출발해서 아마추어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 놀라워요. 리얼 생활체육 예능이죠.”

이호근 아나운서는 프로야구 중계, 리우올림픽 여자배구 세계 예선전 중계를 하면서 바쁘게 보낸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동네 예체능> 녹화도 다닌다.

“제작진이 생각하는 큰 틀의 그림이 있어요. 그 안에서 제 역할을 고민하고 있죠. 웃음을 주려 하기보다는 캐스터라는 본분에 충실하려고 해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동네 예체능 팀에 맞춘 ‘편파 중계’를 하죠. 릴레이가 이어지다 힘들게 득점에 성공하면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게 돼요.”

현장 인터뷰

경기가 끝난 후 물었다. 이호근은 어떤 사람?

강호동

치열한 캐스터다. 몸은 따뜻한 방 안에 있지만 영혼은 철혹 같은 어둠속에 있다. 스스로를 다그쳐 성장을 갈구하는 승부사 기질이 있다.

오만석

맛깔 나는 캐스터다. 스포츠 중계를 위해 타고난 친구다. 어떤 종목을 맡겨도 능수능란하게 요리해 낸다.

김세진

KBS N Sports에서 배구 해설을 하면서 자주 봤다. 좋은 캐스터다. 배구로 비유하자면, 치기 좋은 높이에 공을 올려주는 세터다.

이재윤

소통하는 법을 안다. 이번에 배구를 처음 접했다. 휴대폰으로 속공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고, 조언도 많이 해줬다. 정말 고맙다.





이 동네에선 다들 그래

<우리동네 예체능> 방송 시간

KBS **4** 일요일 아침 6시 방송 (KBS 2TV 화요일 밤 11시 10분)

'우리동네'에선 예체능에 두루 능해야 한다. 운동도 잘하고 웃길 줄도 알아야 한다.

승패를 떠나 마지막에 모두가 웃는, 잘 지은 공깃밥 같은 예능. 그것이 <우리동네 예체능>이다.

"배구 경기는 현장에서 봐야 해요. 그 박진감을 피부로 느끼려면." 이호근 아나운서의 말이 맞았다. 료헤이의 토스를 받은 왼쪽 공격수 학진이 공중으로 수구쳐 스파이크를 때린다. 탕 소리와 함께 블로킹을 뚫은 공이 상대편 코트에 송곳처럼 내리박힌다. 그 울림은 소리가 아닌 진동에 가깝다. <우리동네 예체능>(이하 예체능)이 '전국투어 1탄 전라도편'을 위해 광주를 찾았다. 결전 상대는 광주 블루윙즈. 도민체육대회 선수 출신을 7명이나 보유한 전라도 강팀이다. 일반인 선수들은 '예체능'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끈질긴 승부로 생활체육 종목의 매력을 안방에 전한다.

웃고 떠들다가도 어느새 선수 모드

'예체능'은 2013년 4월, 탁구로 시작했다. 사이클 특집까지 더하면 벌써 12번째 종목에 도전 중이다. 운동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강호동에게 맞춤형 같은 프로그램이다. 종목이 정해지고 팀이 꾸려지면, 맹훈련을 거쳐 일반인 선수들과 시합에 나선다. 연예인 '에이스'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백지 상태로 시작해 피나는 노력으로 기량을 높여가는 모습이야말로 큰 감동을 준다. 레전드라 불리는 왕년의 선수들을 다시 보는 재미도 있다. '스커드 미사일' 후인정, '갈색 폭격기' 신진식, '원조 컴퓨터 세터' 신영철 같은 왕년의 스타를 '레전드 특집'으로 접한다. 월드컵 공격상에 빛나는 김세진은 우리동네 팀의 감독을 맡고 있다. '배구도사' 박희상은 이호근 캐스터와 짝을 이뤄 해설위원으로도 활약 중이다. 옛 추억을 되새기며 웃고 떠들다가도, 코트에 서면 눈빛이 달라진다. 승부의 긴장감이 주는 예체능만의 매력이다. 우리동네 배구단과 블루윙즈의 대결이 시작된다. 3세트 중 2세트를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다. 앞서거나 뒤처거나 하며 접전이 이어진다. 이 순간만큼은 다들 선수다. 내가 치열하게 연습한 만큼 몸이 반응한다. 다 쏟아낼 것 스스로 납득할 만한 경기를 할 것. 이 동네의 룰은 그렇다. 그래서 승패를 떠나 서로 웃으며 약속하게 된다.



좌절은 없다

2016 월드컵 국제남자배구대회

작년 한 해 한국 남자배구는 세계무대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월드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좌절은 없다. 다시 도전이다.

2016 월드컵 국제남자배구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 36개 팀이 3개 그룹으로 나뉘어 3주간 예선을 치른다. 그룹 내 모든 팀들과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싱글 라운드방식이 적용된다. 그 결과 1그룹 상위 4팀, 2그룹 상위 1팀, 개최국 등 총 6개 팀이 결선 라운드에 진출한다. 한국은 2그룹에 속해 있다. 한국의 국제배구연맹(FIVB) 랭킹은 23위. 캐나다(10위), 일본(14위), 쿠바(15위), 이집트(17위), 핀란드(18위), 중국(19위) 등 상위 팀이 즐비하다. 네덜란드(26위), 체코(28위), 포르투갈(30위)은 한국보다 순위가 낮지만 무시할 수 없는 팀들이다. 현실적인 목표는 2그룹 잔류. 6월 1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일본과의 일전도 중요하다.

한국 남자배구의 또 다른 도전

14인의 대표선수 명단이 나왔다. 우선 세터 자리는 한선수가 맡는다. 여기에 새로 선발된 박영우가 힘을 보탠다. 공격의 핵인 왼쪽 공격수로는 기존 김학민, 송희채, 최홍석에 이어 대표팀에 새로 들어온 정지석이 합류했다. 오른쪽 공격수로는 V리그 정규시즌 MVP인 문성민이 2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그 뒤를 서재덕이 받친다. 중앙은 베테랑 박상하, 최민호, 박진우, 진성태가 맡는다. 정성현과 부용찬은 리베로로 발탁됐다. 2015년 한국 남자배구는 악몽 같은 한 해를 보냈다.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7위에 머물며 리우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됐고, 월드컵 2그룹에서도 체코, 프랑스, 일본과 한 조에 속해 온 좋게 강등은 면했지만 2승 10패로 부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자배구는 다시금 도약을 시도한다. 새 사령탑을 맡은 김남성 감독은 스피드 배구와 정교한 세트 플레이의 조합으로 스마트한 전술을 펼칠 계획이다. "주변에서 2그룹 잔류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50% 이상으로 생각한다. 일본, 캐나다에서 경기를 한 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른다. 홈 이점을 활용해 반전을 노리겠다." 한국 남자배구의 또 다른 도전을 주목해보자. 2016 월드컵 그 한국 남자배구 전 경기는 KBS N Sports에서 볼 수 있다.



월드컵 한국 남자배구 경기 일정

(한국 시간)

1주차 일본 오사카	2주차 캐나다 새스캐톤	3주차 한국 서울
6월 17일 vs 쿠바(16:10)	6월 17일 vs 쿠바(16:10)	7월 1일 vs 체코(16:00)
6월 18일 vs 핀란드(19:15)	6월 18일 vs 핀란드(19:15)	7월 2일 vs 이집트(14:00)
6월 19일 vs 일본(19:15)	6월 19일 vs 일본(19:15)	7월 3일 vs 네덜란드(14:00)

Interview

든든한 리더이자 만형 이상민

프리미엄, 스페셜, 리미티드... 이런 거 좋아한다. 특이한 구두와 한정판 운동화를 주로 수집한다. 집에 나이키 조던 한정판만 60컬레 정도 된다. 아디다스 이지부스트도 한 20컬레 될 거다. 종이 박스째 쌓아두지 않고, 우드 케이스에 담아 보관 중이다. 보통은 보관용으로 소장하지만, 나는 실생활에서 신기도 한다. 덕후는 덕후를 알아본다. 김재우, 은지원, 김진표 같은 친구들은 내 신을 보고 "형, 그게 얼마짜인데 신어요?" 한다.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다. 그런 친구들 대리만족 하라고 신는다. 그렇다고 막 신지는 않는다. 스튜디오 녹화 때나 아껴가며 신는다. 한정판은 희소성의 매력이 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 같은, 그 신발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나는 그게 어떤 기억이나 인생관을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 발 사이즈가 270밀리다. 만약 내 아들이 있다면, 나중에 커서 발이 나만큼 자라면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갓동민이라 불리는 빠그맨 장동민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 중고등학생 때 공부보다 게임을 더 열심히 했다. PC방에도 자주 갔다. 그중에서도 특히 '삼국지'라는 전략시뮬레이션을 좋아했다. 이 게임이 너무 좋아서, 게임을 더 재미있게 즐기려고 이문열의 <삼국지>를 스무 번은 봤다. 우리 프로(전국덕력자랑 <최강남녀>)에서 삼국지 덕후 모시면 나부터 섭외해야 할 거다. <삼국지> 열 번 읽으면 서울대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틀렸다. 마음잡고 공부했으면 또 모르지. 그래도 내가 <더 지니어스>에서 카이스트 다니는 오현민을 두 번이나 꺾었다. 오현민도 인정했다. 자기 인생에서 두 번이나 진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웃음) 덕후가 대단한 게 아니다. 누구나 덕후다. 우리 엄마는 '발일 덕후'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발로 출근한다. 그만 쉬라고 해도 다음 날 보면 발에 나가 상추 뜯고 있다. 덕후란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다. 보기에 생산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다. 개인 취향이니 존중해줘야 한다. <최강남녀>도 열린 눈으로 봐줬으면 한다.

덕질, 어디까지 해봤니?

그들의 덕질 리스트

-  조던은 농구 코트를 떠났지만, 에어 조던 시리즈는 계속된다.
-  삼국지를 스무 번 보며 처세와 전략을 깨우쳤다.
-  김연아는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교본이다.
-  넓은 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큰 차는 꿈과 목표의 반영이다.

예능 대세 패션디자이너 황재근

나는 '연덕후'(김연아 선수 덕후)다. 열혈 팬 중 하나다. 피겨스케이팅을 예전부터 좋아했다. 김연아 선수 별명이 많다. 점프의 교과서, 권유나, 대인배 김순생, 연느님... 연느님 연기를 보려고 경기장 앞에서 밤새워 17시간을 기다린 분은 여기 없을 거다. 내가 그랬다. 표를 구한다는 문구를 적은 피켓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도 있다. 새벽 4시 반부터 11시간을 기다린 끝에 어느 분이 주신 초대권으로 경기를 관람하는 기적을 맞보기도 했다. 승냥이(김연아 팬클럽 회원)들의 연아 사랑은 정말 대단하다. 회원 가입도 쉽지 않다.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점프와 스핀의 종류 같은 전문 용어는 기본이다. 2009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쇼트 프로그램에서 연느님이 몇 점을 받았는지, 심판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아야 한다. 김연아의 스케이팅은 다른 스케이팅도 인정한다. 그런 점이 멋있고 훌륭했다. 나도 그런 패션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프리 선언 후 거침없는 활약 김일중

내가 덕후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봐도 뭔가에 깊이 빠지는 성격은 아니다. 욕심이 있어 차는 좀 바꿨다. 결혼 하고 여덟 대째다. 10개월에 세 번을 바꾼 적도 있다. 아내가 임신을 해서 큰 차가 필요할 거 같아 SUV를 샀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한 것 같아 차가 나오기 전에 소형 SUV로 바꿨다. 타다 보니 세단이 편한 거 같아 세단으로 바꿨다. 그런 식이다. 전 직장에서는 차 바꾸느라 생활자금 대출을 받기도 했다. 결국 퇴직금 절반은 못 받았다.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다. 수동 캐피탈을 오래 몰았는데,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다. 학교에 몰고 나갔다. 경적이 고장 나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폭우가 쏟아지면 날 고장 난 와이퍼를 대신해 한 손으로 유리를 닦으며 운전한 적도 있다. 너무 화가 나서 페인트 가게로 차를 몰고 가서 휘발유 대신 시너를 넣어 다니기까지 했다. 여기까지만 말하겠다. 어찌됐든 덕후들의 열정과 에너지만큼은 나도 인정하고 존중한다.

나는 신발 덕후다

나는 삼국지 덕후다

<최강남녀> 4MC가 한자리에 모였다. "당신의 덕질이 궁금하다"고 물었더니 웃으며 실토했다. 한정판 나이키 조던, 이문열의 삼국지, 피겨퀸 김연아... 취향도 남다른 최강MC 4인방의 덕밍아웃 토크.

나는 열혈 연덕후다

나는 그냥 큰 차가 좋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의 덕후였다

글 김선영 TV평론가

전국 덕력 자랑 <최강남녀>

“세상 누구나 덕후 기질이 있어요.” MC 장동민의 말에 핵심이 있다. 별난 취향도 하나의 개성으로 존중하는 시선. 기존 마니아 프로그램과 <최강남녀>의 차별점이다.

<최강남녀> 첫 방송은 ‘오덕후’에 대한 정의로 시작한다. “한 가지 분야에 열광하는 마니아”를 뜻하는 이 신조어는 요즘 대중 문화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올해 문화예술 트렌드 10대 코드로 이 신조어 마니아를 꼽았고, 서울대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트렌드코리아 2016> 역시 덕후 문화를 10대 트렌드로 선정했다. <최강남녀>가 ‘덕후 시대 선언’으로 막을 올린 이유다.

방송이 덕후에 주목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대중의 취향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마니아 문화가 급부상했다. 당시 막 개국한 케이블TV에서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스포츠, 여행 등 전문 채널이 늘어났고, 지상파에서도 클래식, 재즈 등 비대중 장르를 소재로 한 음악방송 같은 마니아 콘텐츠가 생겨났다. 하지만 대부분은 유별나고 비주류적인 취향을 다루는 변방의 문화에 가까웠다. 마니아 문화는 곧 ‘마이너’ 문화였다.

공감 위에 쌓아 올린 덕후월드
최근 들어 덕후의 전문성이 인정받는 분

위이지만, 이 ‘유별남’에 대한 편견만은 여전하다. <최강남녀>의 인상적인 점은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려는 자세에 있다. 첫회 장동민의 오픈닝 멘트처럼 “우리 모두는 무언가의 덕후”일 수 있다는 말이 핵심이다. 이러한 시선은 덕후 정신이 특출난 ‘능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열정’에 있다는 기본적 사실을 일깨우며 공감을 준다. ‘최강 덕력’을 가리는 경연 포맷임에도 불구하고, 우승자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는 것도 그래서다. 가령 ‘푸드 파이터’ 편에서는 내내 느긋하고 행복하게 음식을 먹던 ‘애봉이’가 승자보다 강렬했다. ‘뷰티 덕후’ 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주무한 립스틱을 해맑은 얼굴로 발라보던 ‘사카’가 ‘메이크업이 인생의 즐거움’이라 고백하는 장면이었다.

‘태후의 덕후’ 편도 빼놓을 수 없다. <태양의 후예>를 다룬 만큼 몰입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방송에는 ‘송중기 없이’ 중인 주부, 친구에 반한 여고생, 중국인 한류팬, 고증을 따지다 애청자가 된 특전사 예비역이 출연했다. 출연진 구성부터 최강자 대결보다는 다양한 시청자 대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벌이는 ‘덕심 토크 배틀’이 지식검증 테스트보다 흥미로웠다. ‘화성인’ 같은 유별남이나 ‘능력자’의 특수함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푹 빠져 있는 친근한 표정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매운 맛 덕후’ 편(파일럿)에서 공동 우승자 ‘우양’이 “나만의 즐거움을 함께 나눠 의미 있었던 시간”이라는 소감을 남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수의 능력보다 취향을 공유할수록 행복해지는 순수한 열정이야말로 소중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최강남녀>의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N partner



4K UHD를 주목하라

K2E 남명희 대표

2016 KOBA 전시장을 찾았다. 국내 방송장비 업계의 만형으로 통하는 K2E도 부스를 열었다. 남명희 대표 덕분에 4K UHD를 확실히 알게 됐다.

지난 5월 강남 코엑스에 열린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KOBA)에는 4K UHD* 방송과 HDR** 장비들이 집중 소개됐다. 바로 그 현장에서 K2E의 남명희 대표를 만났다. K2E는 1983년 창립 이래로 방송장비 개발에만 매진해왔다. KBS, MBC 등 국내 방송사에 방송 시스템 설비를 공급하며 다년간 많은 경험과 기술을 쌓아왔다.

“회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최소 20년은 났어요. 아날로그 영상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국내에 우리 회사 하나였을 때죠. 그동안 많이 발전했습니다. 90년대에 SD 방송을 하면서 기술을 조금씩 따라잡았고, HD 방송으로 넘어가면서 그 격차를 5년 정도로 줄일 수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앞서는 분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니만 해도 4K로 넘어오면서 네 개의 출력라인으로 신호를 전송하지만, 우리는 케이블 하나로 12기기를 전송하죠. 확실히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국내 방송장비 업계의 산증인

K2E의 전시 부스를 돌아본다. 4K 16채널 뷰어, 4K 마스터 스위처, 4K 모듈러 시스템 같은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다. ‘4K UHD’ 분야 중에서도 SD(Serial Digital Interface) 쪽에 강점이 있다. “방송국 요청으로 4K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SD에서 HD로 넘어왔듯, HD에서 UHD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봐야죠. 어차피 해야 할 거, 한 발 앞서서 선점하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방송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토대를 다져야 앞서갈 수 있죠.”

남명희 대표는 KBS N에 조연을 아끼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SKY KBS(KBS N의 전신)의 디지털 위성 방송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설치한 회사가 바로 K2E다. 그 시작을 함께한 방송장비 업계의 산증인이자 KBS N의 주주이기도 하다. “기술로 승부하자”가 회사의 모토입니다. 방송 환경의 변화와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뛰어난 장비를 개발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K2E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 UHD(Ultra High Definition)

초고선명 영상기술 방식 중 하나로, 3840×2160 해상도의 고화질 영상을 제공한다. Full HD(1980×1080) 대비 4배나 뛰어난 해상도를 갖추고 있다.



** HDR(High Dynamic Range)

빛에 따른 명암을 세밀하게 구분, 사람의 눈과 유사한 자연스러운 영상을 보여준다. KBS 부스에서 HDR로 마스터링한 <태양의 후예>를 상영했다. 밝기, 색, 명암비에서 기존 화질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KBS N sports '2016 코파 아메리카' 기자 간담회

KBS N Sports는 6월 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16 코파 아메리카' 전 경기를 생중계한다.

6월 1일 서울 상암동 KBS 미디어센터에서 '2016 코파 아메리카'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KBS N Sports는 코파 아메리카의 생생한 현장을 전하기 위해 해설진을 강화하고 캐스터진을 보강했다. 김대길, 한준희, 박찬하 해설위원에 이어 이영표 위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또 축구 전문 캐스터로 강준형, 신승준, 김기웅 아나운서가 함께한다. 매일 경기가 열리기 30분 전에 시작하는 프리뷰 프로그램 <굿모닝 코파>는 조은지 아나운서가 맡았다. 당일 경기를 예측하고 조별 순위,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전한다. 하루 동안 열린 경기를 한눈에 보는 <투데이 코파>도 마련했다. 자칭 '남미 스타일'인 김보경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16개국이 벌이는 아메리카 축구의 향연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대길 해설위원의 '예측'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대회에서 브라질이 몰락할 수 있다. 예선을 무난히 통과한다고 해도 8강에서 A조 미국과 만나면 질 수 있다. 그러면 동가 감독은 경질될 것이다." 브라질뿐 아니라, 메시의 아르헨티나, 북중미의 강호 미국과 멕시코, 전년도 우승팀 칠레 등이 격돌해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친다. 코파 아메리카는 오랜 역사에 비해 스폰서, 중계 환경이 열악하고 출전 팀도 적었다.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그 점이 보완되면서 흥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KBS N Sports는 매일 16시간 중계방송을 편성해 아메리카 축구의 매력을 시청자들에게 전한다.



KBS Drama <엄마는 고슴도치>

시청률 1% 넘는 뜨거운 관심

속터지는 육아일기 <엄마는 고슴도치>가 지난 5월 21일 시청률 1.025%(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를 기록하며 그 인기를 입증했다. 3월 29일 첫 방송된 <엄마는 고슴도치>는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관찰 상황, 거짓말 탐지기 등을 활용하며 많은 부모들의 공감을 얻었다. 입소문이 빠른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도 공감 글이 올라왔고, 시청자 출연 신청도 꾸준히 늘고 있다. "내 아이 키우던 생각도 나고 많이 공감 된다", "육아 정보도 얻고, 애들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내 아이 속마음도 알고 싶다" 등 관심이 뜨겁다. 매주 화요일 낮 2시 30분 KBS Drama 채널에서 방송된다.

초압축 감성 웹드라마 <오구실>

KBS Joy, KBS W에서 6월 9일 동시 첫 방송

엔터테인먼트채널 KBS Joy와 여성전문채널 KBS W가 오는 6월 9일(목) 초압축 감성드라마 <오구실>(72초TV 제작) 시즌1, 2를 묶어서 방송한다. <오구실>은 평범한 30대 여자 구실(이채은 분)의 일과 사랑을 담백한 감성으로 그려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얻은 인기 웹드라마다. 특히 지난 5월에 시작된 시즌2는 새로 이사를 한 오구실이 새로운 취미, 인연을 마주하는 순간을 담담하게 그린 바 있다. 지난 시즌 아쉬움을 남긴 '공대리'와의 러브라인도 기대가 된다. KBS Joy와 KBS W는 <오구실> 시즌2의 서비스가 종료되는 6월 9일(목) 밤 11시 10분 곧바로 시즌1, 2 통합본을 방영한다. 이번 <오구실> 시리즈는 KBS N이 처음으로 정규 채널에 편성하는 웹드라마로,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젊은 층과 기존 시청자들의 접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뮤직&캠핑 페스티벌 '레인보우 아일랜드'

6월 18일 가평 자라섬에서 열려

음악과 캠핑이 만나는 가장 완벽한 순간 '레인보우 아일랜드'가 오는 6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다. '레인보우 아일랜드'는 올해로 6회를 맞은 페스티벌로 2014년부터 KBS N이 공동 진행해왔다. 이전까지 남이섬에서 열렸던 '레인보우 아일랜드'는 올해 캠핑의 성지로 불리는 자라섬으로 이동해 열린다. 캠핑 콘텐츠를 늘려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다. 페스티벌의 주요 라인업으로는 '음원 강파' 자이언티, 신곡 <봄이 좋다>로 돌아온 십센치(10cm)를 비롯하여 장기하와 얼굴들, 김반장 과 윈디시티,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등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름을 올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캠프파이어, 버스킹으로 소통하는 스테이지 등 다양한 이벤트로 관객들과 호흡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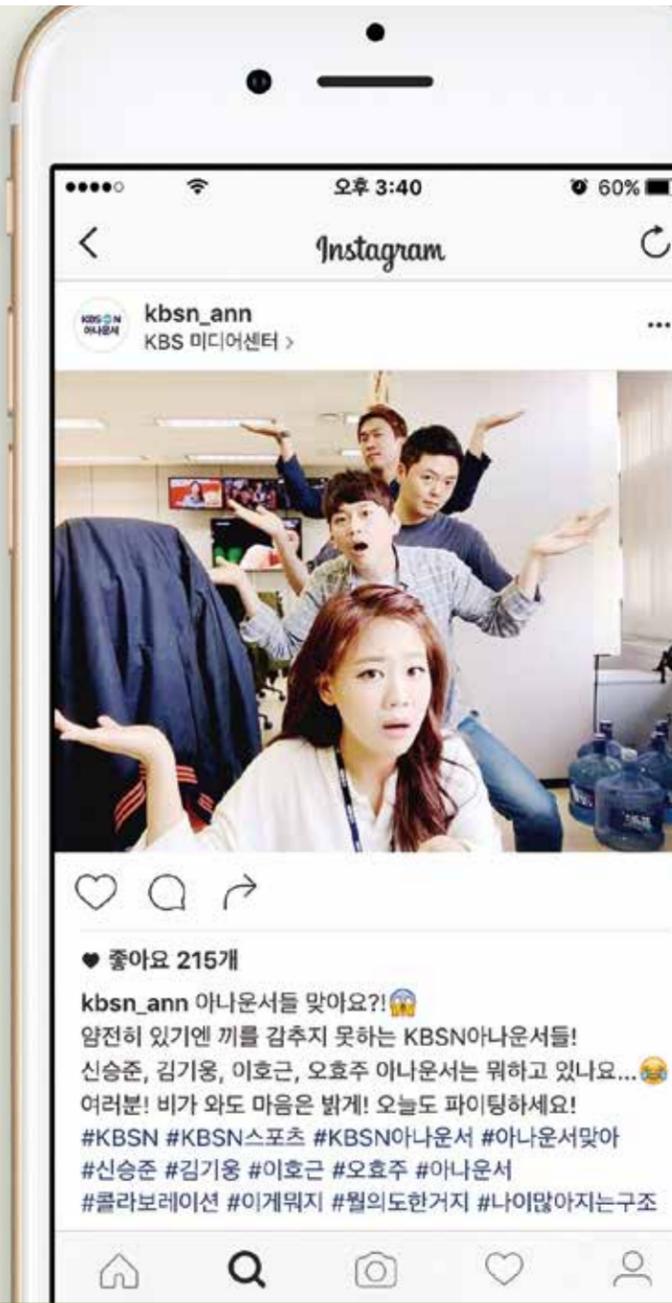


이 재미난 걸 왜 이제 알았을까?

#일 #놀이 #먹방
#뽕끼대방출
#이런거아무나안알라줌

KBS N 아나운서 공식 인스타그램
@kbsn_ann

K리그 중계를 마치고 고급진 커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이태리 옴빠' 강준형 아나운서, 헤어롤로 앞머리를 말고 멍 때리는 이향 아나운서, 점심 먹고 후드티 차림으로 운동 나선 안애경 아나운서... 이들의 일상이 궁금하다면 KBS N 아나운서들이 '직접' 관리하는 공식 인스타그램 @kbsn_ann을 팔로우하세요~



N pick

나도 모르게 그만...

긴 랠리 끝에 우리동네 예체능 팀이 한 점을 달아낸다. 이호근 캐스터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한다. 명백한 '편파 중계'다. 일주일에 한 번 봉고차에 올라 <우리동네 예체능> 전국투어 현장을 쫓아다니느라 바쁘다. 예능에 얼굴을 비친 뒤로 알아봐주는 분들이 늘어 고맙다. 참고로, KBS N 아나운서 인스타그램도 그가 관리한다.

